



큰 일꾼·김달진씨는 결혼식 전날 도록·팝플렛을 모으기 위해 화랑가를 돌아다니는 일하로도 유명하다.

걸어다니는 '미술 자료실'

김달진씨, 24년간 발로 뛰어 방대한 자료 수집·정리...미술사 바로잡는 책 출간

지 난해 한국에서는 미술 전시회가 몇번 열렸을까. 화랑은 몇개나 늘어났을까. 이러한 물음에 정확히 대답해 주는 기관이나 단체는 거의 없다. 90년대 들어 미술계가 외형적으로는 풍성해졌지만, 제대로 된 언급 하나 없는 것이 미술계의 현실이다. 자료의 중요성에 대한 이런 혹은 인식 부족이 여전한 미술계는 국립현대미술관 자료실 한 곳에 거의 의존하는 형편이다. 기관이나 개인을 막론하고 국립현대미술관 자료실에 '바운스'를 의지하는 까닭은 한국 현대 미술 자료에 관한 한 '살아 있는 컴퓨터'로 '인간 자료실'이라는 별명을 가진 자료 전문가 김달진씨(40)가 근무하기 때문이다.

김씨는 70년대 초반부터 한국 현대 미술 자료를 모으기 시작해 가장 정확하고도 풍부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어떤 전시회가 언제 어디서 열렸느냐'는 것에서부터 '한국의 미술관 숫자는?' '어느 작가의 전화 번호는?'이라는 질문에 이르기까지 그에게는 늘 문의 전화가 쏟아진다. 그는 자료 목록을 보지 않고 대부분 그 자리에서 답변한다.

김씨는 손전등 발로 뛰어 확보한 자료를 바탕

으로 글을 발표하기 시작했고, 정확한 자료에 근거한 그의 글에 제기는 항상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미술 자료 모으기 20여 년, 평론가나 미술 대학 교수 신분도 아닌 처지에서 늘 주목받는 글을 발표한 지 10년 만에 김씨는 그동안 써온 글을 《바로 보는 한국의 현대 미술》(도서출판 발인)이라는 단행본으로 묶어냈다.

잃어버린 근·현대 미술 자료 복원

《바로 보는 한국의 현대 미술》은 일제 강점기와 6·25를 거치면서 유실되어 복원이 거의 불가능해 보인 한국 근·현대 미술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미술사이자 방대한 자료집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한국에서 애포르델(비정형 회화) 그룹이 언제 어떻게 태동했으며, 1923년 화가 주경이 시작한 추상 미술이 50년대 말 운동으로 발전하고 또 국전에서는 어떻게 대접 받았는가, 외국 작가의 국내전은 광복 이후 몇 차례나 있었고, 최근까지 한국 미술계에서 일어난 표절 시비는 어떤 것이 있었나, 지난 45년간 한국 여성 미술은 어떻게 전개되었나 하는 점들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그의 글이 갖는 구체성에 힘을 실어 주는 것은 정확한 자료이다. 김씨는 서든한 폭지로 이루어진 각각의 글에 반드시 인포나 도표를 붙여 글의 신빙성을 확보했고, 역사에 기록된 만한 자료 도판 1백 64점을 함께 실었다. 한 시대나 사조의 중요한 국면을 보여주는 도판들은 작품은 물론 판플렛·포스터, 나아가 중요 전시회와 입장권까지 포괄하고 있어 도판을 일별하는 것만으로도 한국 현대미술사를 훑어보는 일이 된다.

김씨가 미술 자료에 관심을 가지고 모으기 시작한 것은 72년 경북국립현대미술원에서 열린 '한국근대미술 60년전'을 보고 난 다음부터였다. 1910년부터 60년대까지의 주요 작품을 한자리에 모은 획기적인 전시회를 접하고 그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그를 더 놀라게 한 것은 작고한 작가의 자료가 거의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었다. 그 이후 미술 자료 수집과 정리에 미친 듯이 매달렸던 그를 81년 국립현대미술

관 자료실에 끌어들이는 권문인으로서 처음 관장에 취임한 이경성씨였다. 이관장은 개인적으로 모이든 근대 미술사 자료를 모두 그에게 맡겼고, 김씨는 매주 인사동·동숭동 화랑가를 돌아다니며 판플렛과 도록을 수집하고 정리하는 일에 몰두했다. 매주 금요일에 나가는 김씨의 '팝플렛·도록 사냥'은 지금도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그의 이런 작업은 작가나 평론가가 작성한 잘못된 화력을 바로잡는 '권람책'은 속고 있다. 미술 자료 기록의 허구 '엔터티 전시회 리뷰'는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나와 같은 글들로 이어졌다. 82~85년 국립현대미술관이 기획한 '현대미술초대전'에 출품한 작가들이 이 전시회를 경역에 쓰면서 '국전초대작가전' '대한민국미술대전초대작가' 등 무려 열여덟 가지의 잘못된 이름으로 쓴 것을 지적한 일은 김씨가 작업한 좋은 사례 가운데 하나이다. 김씨는 이 책을 통해 미술자료센터 설립과 제대로 된 미술언론을 발행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하는 것이 힘이 아니라 '자료는 국력' 시대에 살고 있다"는 믿음이 확고하기 때문이다.

성수경 기자